



## Young Adult Working Group

[Web Page](#)

**Members:** Frank Vuong, Exco; Bethany Vu, Dong Hanh; Dee Scaramella, Jesuit Alumni and New England CLC Rep; Elaine Melissa Urena, Florida YYA Rep; Lily De Elon, Florida Adult Rep for YYA; Christina Oh, Chicago CLC Adult Rep for YYA; Mary Wescovich, Adult Rep. for Saint Louis; Christine Cichello, Boston College CLC program & New England CLC Rep.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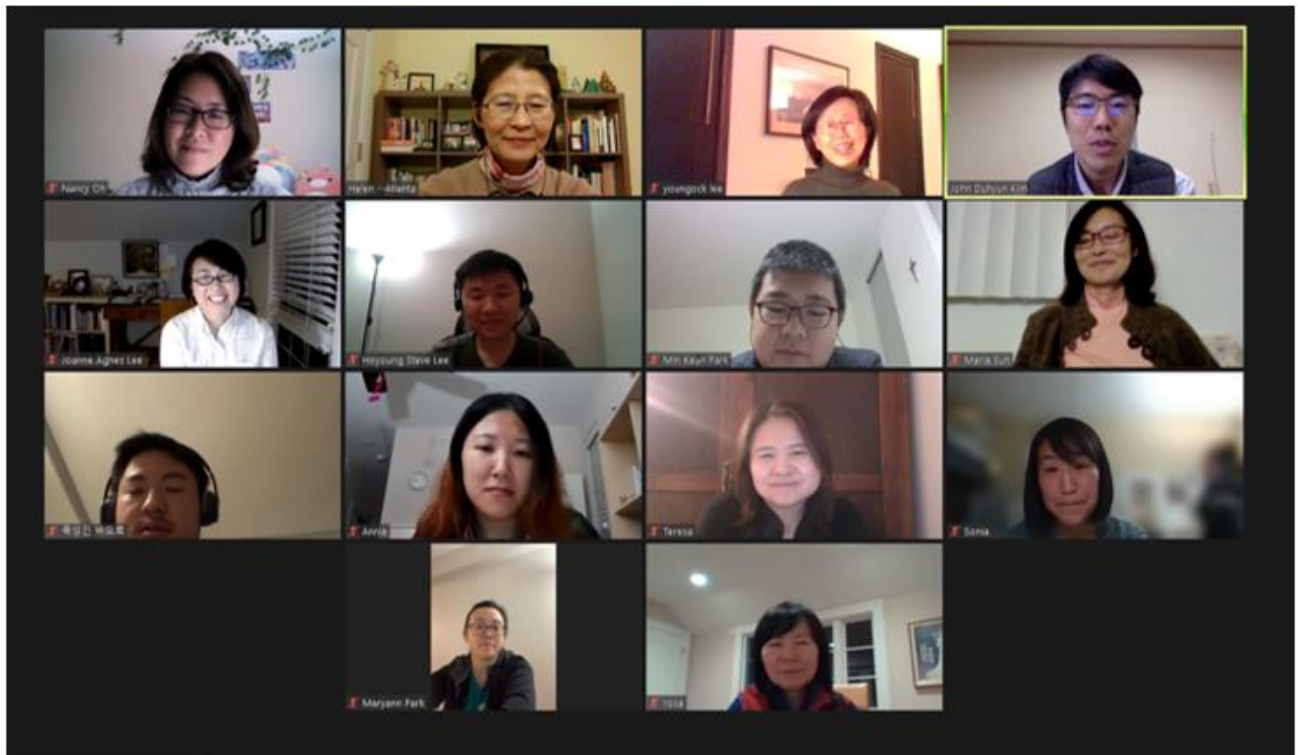
**Sept. 5-Nov. 12:** NKCLC arranged 10 weeks Spiritual journey and 9 young adults joined the program. Fr. John Kim (Korean-American Jesuit priest) gave a final lecture about Ignatius spirituality. An extended program, only for those who wants to stay in CLC with 18th Annotation Light-Works for the next 14 weeks is being offered.

**Nov. 7th:** Dong Hanh Young Adult Ministry just had an online event called Just in Time: Faith from the Vietnamese Martyrs to Me. It was an intergenerational exploration and dialogue for young adults and adults to see how our expressions and environment of faith have changed but the desire to connect with the Lord and respond to His Love stays the same.



*Boston College CLS All Saints Prayer Service. Over 80 students partic-*

<Tracking the Spirit 10 주 프로그램 – 김두현 사도요한 신부님 특강>



<Harvest Magazine Article>

저는 처음 이 가이드직을 맞아달라 했을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한국말이 편하고 영어는 듣는것은 익숙하지만 제가 영어그룹을 영어로 가이드 하라는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쟁피할것 같은 마음보다 하느님이 하시는일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마 언어 때문에 잘난척 할일은 없겠다 안심도 되었습니다.

막상 저보다 훨씬 어린 젊은 사람들의 그룹을 만나고 그들의 나눔을 듣다보니, 아,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 자신이 기도하면서는 자신없고,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까 하는 두려움도 많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문득, 하느님은 나도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겠구나 하는 위로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어린나이에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할수 있었다면 내 삶도 많이 달라졌을텐데, 그리고 조금은 쉬웠을텐데 라는 마음도 들면서요.

아직 젊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서도 하느님을 찾으려,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 애쓰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하느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희망을 저도 함께 느낄수 있는것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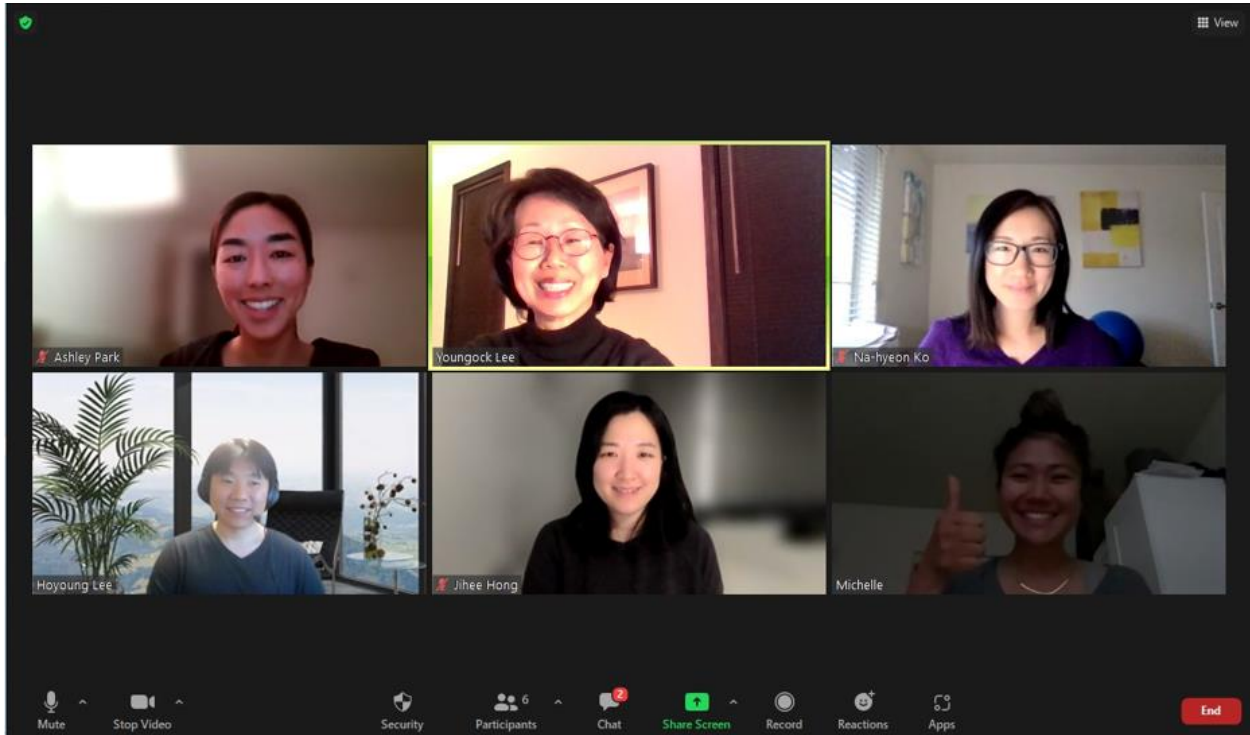
- 박 크리스틴 데레사(서부)

KCLC-NY 주최로 2006 년 여름에 청년 피정 봉사자로 초대 되면서 청년들과의 인연은 시작되었던 것 같다. 세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청년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았고 봉사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년들과 함께 동반하며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기쁨과 감사함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 매년 청년 피정을 해오다가 2014 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청년 피정을 계획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영어권 예수회 신부님 섭외 그리고 3박 4 일 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피정에 참석하려는 청년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이냐시오 성인 회심 500 주년을 맞이 하여 NCLC-USA, NKCLC 등에서 청년 사도직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교회 주인이 될 청년들을 위한 것이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NKCLC 에서 Tracking the Spirit 자료로 청년 10 주 프로그램에 가이드로 초대받고 화상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처음 청년들과의 만남과 은총의 시간들을 생각 하면서 초대에 응답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전국 청년팀을 위한 화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화상으로 하는 모임이라 전국 어디에서나 참석 할 수 있었다. 우리 팀에는 다양하게 텍사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에 계신분들이라 반갑고 더욱 새로웠다. 우리는 벌써 5 번째 모임을 마쳤다. 첫모임 에서 가졌던 설레임과 어색함들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나눔이 깊어 가고 있다. 피정자들은 각자 생활에서 겪게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들을 나누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와 나눔 안에서 주님께 의탁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 지고 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마음을 열고 나누고 들어준다.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앞으로 남은 5 번의 모임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또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응답해 나갈지 기다려지며 청년 사도직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 올린다.

- 조 미애 로사(뉴욕)

<월요일팀 - 가이드 이영옥 마리아>



<일요일팀 - 가이드 박 데레사>

